

시온장로교회는 아래의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복음의 진보)을 위해 존재하며 움직여 나갑니다.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 based on pastoral philosophy below, is existing and moving forward in order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he progress of the gospel).

▣ 목회철학 Pastoral Philosophy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구원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historia salutis*)과 구원의 적용(*ordo salutis*)을 반드시 그 연합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와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틀(“already not yet” frame)에 근거한 교회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있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양적인 성장으로 이루는 교회 = 부흥한 교회”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복음의 진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나누는 것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참하는 교회 = 부흥한 교회”라는 성경적 등식을 진지하게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가용한 모든 에너지와 자원(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을 집중하는 목회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Salv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union with Christ. Based on that, salvation accomplished(*historia salutes*) and salvation applied(*ordo salutes*) are to be comprehended in the union. This is the pivotal basis for the Reformed Soteriology.

At the same time, based on amillennialism and Geerhardus Vos' "Already Not Yet" frame, it is sure that the church will be more tempted and persecuted than before, and will be in harder situation.

Grounded on this truth, the frame such as "The Growing Church in its membership = The Revived Church" is carefully rejected. Rather, the frame such as "The Church actively and effectively involved in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progress of the gospel, the sharing of the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with others, and proclaiming the union with Christ) = The Revived Church" is to be carefully but surely accepted. Lastly, in order to be done as the church above, the pastoral ministry should be able to use all possible energy and resources (whether visible or not).